

高麗時代의 住宅

金三代子

一、序

住宅이란 國家나 民族의 生活樣式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有形的資料로 住宅樣式은 一朝一夕에 이루어 지지도 않고 一時的인 國家政策이나 外勢의 影響에 의해 形成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三國時代 以來로 中國文物의 影響을 끊임 없이 받아 住宅樣式도 中國的인 要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나 傳來 家屋들은 中國의 建物처럼 높고 雄壯하기도 않고 秀麗한 山川과 調和되는 아담하고 洗鍊된 美를 보여 준다.

이러한 住宅은 우리나라가 位置한 自然環境 國家政策 外來文化의 影響 우리 先祖들의 慣習 風俗 審美眼 등 여러 가지 要素가 오랜 세월동안 作用되어 形成되어 졌다.

우리나라의 住宅은 모두가 木造로 되어 非永久的이며 여러차례의 戰亂으로 燒失되어 現存하는 木造建築物은 寺刹建物이 主이며 그나마도 十三世紀 以後의 建物들이다. 더욱기 民家는 高麗以前의 遺存例가 전혀 없어 記錄이나 寺刹建物 古墳壁畫 등을 미루어 當時의 모습을 살펴 보는데 수 밖에 없다.

二、高麗以前의 住宅

1、部族國家 時代

國家體制가 確立되기 以前의 部族國家 時代의 住居形式은 天然洞穴

生活 竪穴生活 樹上住居 穴窟 집 형태였다는 것은 先史時代 遺蹟址 調查와 文獻記錄 등으로 알 수 있다.

半島의 南쪽에 자리 잡았던 韓의 居處는 草屋土室의 무덤形態도 出入口는 위에 있었다^①.

高句麗 北쪽에 位置한 棘靺鞨도 竪穴生活을 하였으며 그 깊이가 깊을수록 좋고 貴하게 여겼으며 큰 집은 層階가 아홉이었다^②.

肅慎(女眞)은 夏節에는 나무위에 집을 지어 살았으며 冬節에는 竪穴生活을 하였는바^③ 땅을 깊이 파서 提防을 쌓아 層階를 設置하여 위로出入했고 지붕은 풀로 이어 그 모양이 둥근 봉분과 같았다^④.

弁辰(弁韓)에 대해서는 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다음과 같이 引用하여 전하고 있다. 「魏略에云하길, 그나라는 집을 橫木을 쌓아 牢獄처럼 만든다^⑤」。 이같은 住宅形式은 근래에까지 일부 남아 있는 穴窟 집 형태와 類似했던 것으로 보인다.

2、三國時代

高句麗는 漢四郡을 克服하는 過程에서 形成되어 建國 初期부터 漢文化의 影響과 刺戟을 받았다.

舊唐書 東夷傳 高(句)麗條나 唐書 東夷傳 高(句)麗條에 「山谷에 의지하여 살았는데 대개는 茅草로 지붕을 이었고 王宮 官府 佛寺 神廟는 기와를 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겨울에 長坑을 만들어 아래에 불을 때서 따뜻하게 하였다」는 記錄이 있다. 이로 미루어 이 時期에 始原的인 온돌이 庶民層에 널리 普及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句麗人들의 居處는 節儉하였으나^⑥ 宮室治粧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左右에 큰 집을 세워 鬼神과 零星社稷에 祭祀지냈다^⑦.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上流社會의 住宅은 맞배 또는 우진각 기와 집으로 지붕 위에는 鵝尾와 風磬으로 장식했고 室內에는 文樣있는 방장을 쳤으며 平牀과 椅子를 使用했다.

방바닥은 흙바닥이나 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隨書나 北史 高句麗傳에 好躡踞란 기록이 보이는 바 躡踞란 무릎을 세우고 쭈구리고 앉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바닥이 차고 습하므로 그렇게 앉는 方式을 좋아했던 것 같다.

百濟에 관한 記錄이나 遺構는 거의 없는 편으로 隨書나 通典 百濟條에 「땅은 습하여 산에서 살았다」고 했고 唐書와 北史 百濟傳에 「俗與高麗同」이 되어 있어 住宅樣式은 高句麗와 비슷했을 것이다.

百濟 本記에 「百濟王이 王興寺에 禮佛하기 전에 泗泚河 언덕 위의 바 위에서 먼저 佛을 禮拜하였는데 그 돌이 저절로 따뜻하므로 煖石이라 하였다」^⑧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百濟에도 온돌이 存在했던 것으로 보인다.

百濟의 建築樣式을 具體的으로 살필 수 있는 遺構로는 百濟 工人이 세웠다고 전하는 日本 法隆寺의 中門과 金堂이 있고 百濟 木造建築樣式을 模倣하여 만들었다는 玉虫厨子(佛龕)가 있다. 이들에게 보여지는 建築形式은 지금까지 高句麗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 팔각지붕 형식과 「雲肘木」이라는 料槁樣式을 보여 高句麗 建築보다 華麗하고 進歩된 樣式을 나타내고 있다^⑨.

이밖에 宋山里古墳과 武寧王陵의 發掘로 出土된 埽이나 古墳을 쌓은 埽築方法 등으로 우수한 建築樣式을 지녔음이 確認된 바 있다.

民家は 아니지만 百濟本記에 「새로이 宮殿을 지었는데 檢소하면서도 누추하지 않고 華麗하면서도 奢侈하지 않았다」^⑩했고 「궁성을 修理하고 연못을 파고 假山을 만들어 기이한 禽獸와 草木을 기르고」^⑪하였으며 「臨流閣을 宮城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길이었다고 또 연못을 파고 이상한 새를 기르고」^⑫ 또 「연못속에 城을 만들어 中國의 方丈仙山을 模倣하기도 하였으며……四泚河의 北浦에 奇巖과 怪石을 세우고 그 사이에 奇花異草를 심어 마치 그림폭과 같았다」^⑬는 것 등으로 宮室에서의 이러한 建築과 造景樣式이 民家에도 영향을 주어 百濟의 民家들은 조출하였고 造景수준도 상당하였던 것 같다.

新羅에서는 身分에 따라 室의 크기와 建築材 裝飾 등을 嚴格히 規制하였는데 이를 換言한다면 「王家에서는 室의 長廣은 二四尺을 넘었고 막새기와를 덮고 飛簷 重楸 拱牙 懸魚를 달고 金, 銀, 鍮石, 白鐵, 五彩로서 꾸미고 잘 다듬은 돌로서 三重이상이 階石을 설치하고 埴塼은 梁棟을 세우고 石灰를 썼다. 室內에 거는 발(簾)은 비단 모직 및 엮은 綿布에 繡를 놓은 周緣을 하였고 繡屏風을 사용했으며 寢牀은 玳瑁나 沉香으로 꾸며다」^⑭ 또 「虎皮 大唐毯 毳毼을 사용했다」^⑮ 毳毼란 무늬있는 毛織物이고 毼毼이란 西域製品の 바닥이 세밀한 털자리로서 寢牀의 작은 椅子에 놓는다^⑯고 하는바 요즈음의 carpet으로 보인다. 이 毼毼은 六頭品 以下에서는 使用을 禁한 것으로 보아 當時 西域과의 交易이 活潑하여 六頭品 以下에서도 使用했던 것으로 보인다.

唐書 東夷傳에 「겨울에 아궁이를 방안에 만들었고……」^⑰나 三國遺事에 「風雪과 大寒을 맞나 路傍茅舍에 들어가니 그안에 煙火가 있어 매우 따뜻하였다. 燈불밑에 나아가니 높은 부모와 처녀가 火爐를 둘러앉았는데……」^⑱라는 記錄 등으로 미루어 新羅에는 온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新羅에는 「四節遊宅이 있어 四季의 아름다움을 즐겼고 제 四九代 憲康王時에는 慶州일대는 모두가 瓦屋이었다」^⑲고 하는데 當時의 기와 지붕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으로 廉居和尚塔(景福宮소재) 雙峯寺 澈鑿禪師塔이 있다.

三、高麗의 時代의 背景

後三國을 統一한 王建은 太祖 二年에 도읍을 松岳의 남쪽에 定하여 開州라하고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가리어 五部로 나누고 丁夫 二〇四四〇八을 徵發하여 羅城을 쌓았는데 城의 周圍가 二九七步에 羅列된 殿閣이 一三三間이고 大門 八, 中門 八, 小門 十三이었다. 또 丁夫 二三八九三八人和 工匠 八四五十人이 動員되어 皇城 二六百間 城周一〇六六十步 高二七尺 廊屋 四九一十間을 지었다.

太祖는 統治體制을 整備하고 內治에 힘썼으며 後孫들에 十訓을 남겨 거울을 삼도록 하였다. 이 十訓에는 太祖의 思想과 政策을 잘 나타내 준 것으로서 太祖는 佛教를 尊重하고 風水地理說을 迷信했었다. 太祖가 風水地理說을 迷信하게 된 것은 高麗의 建國을 豫言한 바 있는 道詵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道詵은 秘記를 남겨 高麗의 政策決定과 建築生活에 막대한 影響을 주었다.

第四代 光宗때의 科擧制度 實施로 새로운 貴族階層이 생기고 十一代 文宗에 이르러 田制 官制 兵制 等의 모든 制度가 完備되어 中央集權의 國家體制가 完成 되었다. 따라서 國運이 隆盛하고 文化가 發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 土地는 國有로 官階에 따라 分配하였으나 睿宗 仁宗朝에 이르러 政治的 權力을 친 貴族階層은 土地를 兼併하여 農民들은 沒落하고 貧富差는 激甚하게 되었다.

對外的으로는 九九三年부터 一〇一九년까지 前後 四次에 걸친 遼(契丹)의 侵入으로 한때는 開城까지 占領당해 宮闕을 비롯한 民家가 多數 불탔으나 講和를 맺어 遼와는 그후 平穩한 國交關係가 繼續되었다. 이 무렵 東北方面에 있던 女眞族이 勢力을 擴張하여 金을 세우고 遼를 滅亡시켜 宋과 對立하면서 高麗에 壓力을 가했다. 高麗는 一一二六年 金과의 屈辱의인關係를 맺어 對外的인 平和를 維持하였다. 그러나 高麗는 宋에 對해 慕華思想을 가져 十二代 文宗으로부터 十八代 毅宗에 이르기까지 宋과의 海上 貿易으로 優秀한 宋文化를 攝取하여 도자기 그림 등이 發達되었으며 建築은 宋에서 盛行하던 柱心包樣式이 도입되었다.

一八代 毅宗은 高麗 歷代 임금 가운데서 가장 奢侈하고 華麗하여 여러 곳에 亭子를 짓고 造景사업을 벌였으며 珍貴하고 아름다운 玩好物을 蒐集 陳列하여 文臣들과 宴樂만을 일삼고 武臣들을 輕蔑하였다. 이에 不滿을 품은 武臣 鄭仲夫 李義方 등이 亂을 일으켜 毅宗을 폐하고 明宗을 세웠다. 以後 三十餘年間 武臣들의 權力 鬭爭으로 社會는 어지러웠으나 一一九六年 崔忠獻의 執權으로 武臣들의 政權 다툼은 일단락 되고 一一

九六年부터 崔氏의 獨裁 政權이 始作되었다.

이 時期에 中央아시아 大陸에서는 테무친이 몽고族을 統一하여 元을 세우고 金을 滅亡시켰다. 一二三一年 高麗는 元의 侵入을 받아 戰勢가 不利해지므로 高宗은 講和를 맺어 싸움은 일단 中止되었다. 當時 執權者인 崔怡는 江華로 遷都하여 長期抗戰의 態勢를 取하였다. 이는 海戰에 弱한 元의 弱點을 利用한 것이다. 王은 貴族들과 함께 江華에서도 開城에서와 다른 豪華生活을 누렸다.

元의 前後 七次에 걸친 侵入으로 國土는 荒廢하여 지고 人命 財產 文化財의 被害는 莫大하였다. 一二五八年 崔怡가 江華에서 砲殺되어 崔氏 政權이 沒落되고 王權이 回復되었다. 王(元宗)은 몽고와 講和를 맺고 一二六四年 開城으로 還都하였다. 이후 약 百여년간 元의 皇室과 駙馬關係를 맺고 元의 風俗을 따랐다. 元의 要求로 二次에 걸친 日本侵略을 위한 東征은 高麗王室에 過重한 負擔을 주어 國力이 弱化되었다. 그위에 紅巾賊과 倭寇의 잦은 侵入 特히 一三六一年 紅巾賊의 侵入으로 都城內의 民家는 반 以上이나 불 타버리게 되었다.

이 時期에 中國大陸에서는 明이 일어나고 恭愍王은 元의 勢力을 몰아냈으나 잦은 外勢의 侵略으로 武臣을 重用하여 新興武將들의 힘이 得勢하게 되었고 一三九二年 드디어 李成桂에 의해 高麗王朝는 滅亡되기에 이르렀다.

四、高麗의 住宅

1、住宅의 概觀

高麗時代의 建築物은 建物の 크기보다 높이를 規制했던 것으로 보인다. 建物 規制에 대한 자세한 記錄은 없고 단지 「天子는 堂을 九尺으로 하고 諸侯는 堂을 七尺으로 한다고 禮에 말하였다」²⁰⁾는 것으로 보아 民家は 이보다 훨씬 적은 數值로 規制되었을 것이다. 이 九尺 七尺이라는 치수는 높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유로는 高麗史 道詵의 秘

記를 인용한 글에 「山이 드물면 高樓를 짓고 山이 많으면 平屋을 짓는다. 多山은 陽이 되고 稀山은 陰이 된다. 高樓는 陽이 되고 平屋은 陰이 된다. 우리나라는 多山인데 만일 高屋을 지으면 衰損을 招來할 것이다. 그러므로 太祖 以來로 闕內에만 그 屋을 높이 하지 않을뿐 아니라 民家에까지 禁하였는데②」라고 하여 높은 건물을 짓는 것에 對한 規制를 하였고 또 「太祖는 節儉하여 宮室을 낮게 지어 겨우 비바람을 피했을 정도②」라는 記錄이 있어 太祖의 節儉性을 나타내기도 했으나 그보다도 風水說과 圖讖思想을 迷信했던 太祖가 道誥의 뜻을 좇아 宮闕을 낮게 지었다고 봄이 더욱 妥當할 것이다. 이때의 民家들은 그 높이가 매우 낮았다고 보인다. 이렇듯 住宅의 높이가 낮았던 것도 第四代 光宗때에 奢侈風潮가 생겨 州, 郡, 縣 등의 土豪들은 財力에 따라 큰 집을 지었다③.

一一三三年 高麗에 왔던 宋의 使臣 徐兢이 지은 高麗圖經에 當時 高麗住宅에 對한 狀況을 다음과 같이 記錄하고 있다.

「백성들은 地形에 따라 집을 짓되 그 높낮이는 벌집이나 개미굴 모양이었다. 퍼를 잘라 지붕을 이어서 겨우 비바람을 피했으며 그 크기는 서까래 두개를 넘지 못하였다. 富者나 기와를 덮었지만 열이면 하나 둘 있을까 할 정도였다④」

當時 서까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正確히는 몰라도 高麗末期 禡王時의 記錄에 「八月에 都城 五部の 戶數를 改定하였는데 家屋의 閒架가 二十以上인 것으로서 一戶를 삼아 軍士 一丁씩을 내게 하여 閒架가 적으면 五家を 합하거나 三, 四家を 합하여 一戶로 삼았다⑤」

여기서 閒架란 六尺 一間을 말하는 것으로 五집 또는 三, 四집을 합하여야 二十間이 될 정도의 적은 규모인 三, 四, 五間의 草家들이 都城 안에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毅宗時에 王과 일부 貴族層의 華麗하고 放縱한 生活은 이들의 嗜好에 맞는 華麗한 建物과 工藝品을 多量 製作하게 되었다. 毅宗은 十八年 七月 壬辰에 詔하기를 「民은 나라의 根本이라 根本이 튼튼하여야 나라가

安한 것이다. 요사이 公私間 土木의 役으로 인하여 백성이 살수가 없게 할 황차 지금 宦寺 등이 屋舍를 營造하고 다투어 奢侈하고 華麗함을 일삼으니 有司들은 이를 모두 禁斷하도록 하라⑥」하였으나 王室에서의 지나친 奢侈風潮가 일부 權力層에도 蔓延되어 住宅의 규모가 宮闕을 능가할 정도였다. 즉 毅宗時에 內殿崇班을 지낸 「鄭誠의 집은 宮闕東南 약 三十步 거리에 있었는데 行邸이 二百여間이고 樓閣이 高險하고 金色 青色이 燦爛하여 宮闕에 비기게 될 정도였다⑦」고 한다.

高麗後期の 權臣인 崔忠獻은 上疏하기를 「조정 신하들이 節儉하지 않아 第宅을 修理하고 衣服 玩具를 정리하여 珍寶로서 裝飾하고 奇異한 것을 자랑하여 風俗이 傷敗하므로 訓戒하여 奢侈함을 禁하고 儉素함을 崇尚케 하자」고 했으나 忠獻 자신은 「집을 闊洞에 지으면서 民家 백여채를 칠고 雄壯하고 華麗하게 하여 大闕과 비슷하였다⑧」고 한다.

몽고(元)와의 講和후 忠烈王과 結婚한 齊國大長公主는 元의 工匠을 請해 新宮을 짓고 樓閣을 세웠는데 이것이 元의 華麗하고 雄壯한 多包系 建築樣式이 도입되는 直接的인 契機가 되었을 것이다. 또 公主와 함께 高麗에 온 「張舜龍은 印侯와 車信과 더불어 權勢를 다투고 奢侈함을 正정하여 집을 지음에 華麗함을 다했다⑨」고 하는바 當時 元의 住宅樣式이 우리나라 民家에 직접적으로 미친 影響이 컸다고 본다.

高樓를 짓는 것을 억제 하였어도 忠烈王時에는 開城府의 路傍에는 지나가는 사람을 내려다 볼 수 있는 家樓가 있어서 公主의 行次를 내려다 볼가 염려되어 家樓를 撤去하도록 命하였다⑩.

여러차례의 戰亂으로 荒弊해진 市街地를 復舊하기 위해 忠宣王은 宣義門 안에 있는 빈터에 瓦屋을 짓게 하고 또 命하여 五部の 民家は 모두 기와를 덮도록 私黨을 禁하지 않게 하였다⑪」는 記錄으로 미루어 城內는 몹시 荒弊하여 빈터가 매우 많았고 草家집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恭愍王時 紅巾賊의 侵入후 都城內의 民家가 燒失되어 빈터가 많았고 그 빈터를 強한 者들이 所有하여 穀田을 삼아 가난한 사람들은 은 집을 짓고자 해도 땅을 얻을 수 없어 人家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이에 恭愍王 四年 三月 憲士가 上疏하기를 「都城의 虛實은 人家의 多小에 달린 것이므로 開城府로 하여금 民徒를 踏驗하여 그 主人에게 터를 정하여 집을 짓게 하되 만약 期限內에 집을 짓지 못하면 그 兼併한 터를 스스로 집짓기를 원하는 者에게 주면 戶口가 날로 증가할 것이요, 터를 받고 집을 짓지 않는 者나 집을 비우고서 接居하지 않는 者 또 집을 헐고 밭을 만드는 者는 嚴重히 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소서」하였다. 이 記錄으로 當時 開城內의 荒弊相과 이의 復舊를 위해 朝廷에서는 여러가지 方案을 講究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2、住宅의 材料

A、지붕

지붕의 材料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개와 짚 따 외에 나무껍질 靑磁瓦 棕櫚 유리瓦 등이 있었다.

靑磁瓦는 十八代 毅宗時 民家 三百여채를 헐어 離宮을 짓고 그 옆에 養怡亭이라는 亭子를 지어 지붕을 靑磁瓦로 덮었다³³⁾고 한다. 이 靑磁瓦는 全南 康津郡 沙堂里 高麗靑磁瓦 窯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推定되는데 이곳은 國立中央博物館에서 一九六四—一九六七年까지 四次에 걸쳐 發掘하였다. 이곳에서는 암막새 수막새 암기와 솟기와 망와 치미 등 각종 기와가 출토되어 靑磁가 工藝品으로서의 日常用器外에도 建築材로서 使用되었음을 보이고 있다³⁴⁾.

棕櫚는 「養怡亭의 南쪽에 지은 養和亭의 지붕을 棕櫚로 덮었다³⁵⁾」는 高麗史의 記錄이 있다. 棕櫚는 우리나라에서는 生産되지 않으며 中國의 嶺南 四川 江南에서 生産되는데 이 棕櫚는 文房用 比(符)를 만들어 쓰기도 하는 바 이를 輸入하여 亭子의 지붕을 덮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무껍질 지붕은 忠肅王이 春正月에 平州 天神山아래에 사냥을 하기 위해 假屋를 짓고 계시는데 「虞人에게 지붕을 덮는데 어떤 것이 좋으나 고하니 虞人이 딱갈나무 껍질이 가장 좋으니 다라고 대답했다³⁶⁾」고 하는바 딱갈나무 외에도 자작나무(白樺) 참나무 피나무 등의 여러가지 나무껍질

이 山間地方의 지붕材로서 쓰여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나무껍질 지붕은 江原道 山間地方에 일부 남아 있다. 유리瓦는 「忠烈王 五年 僧 六然으로 하여금 江華에서 유리瓦를 굽게 하였는데 廣州의 義安土를 使用하였더니 南商의 파는 것 보다 더 좋았다³⁷⁾」고 한다. 當時 忠烈王 后妃인 元의 齋國大長公主가 元의 工匠을 칭해 新宮(膺慶宮)과 삼층누각 寒碧樓를 施工하여 同王 六年 六月에 完工하였다³⁸⁾고 하므로 이 유리瓦는 三層樓閣이나 新宮의 一部 建物 지붕을 덮기 위해 特別히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여진다.

B、담장

高句麗 古墳壁畫에서 지붕을 덮은 담장(또는 牆屋)의 형태를 볼 수 있고 新羅時代에도 담장에 梁棟을 하였다.

高麗時代에는 담장에 기와를 덮는 樣式은 普通化되어 「忠烈王時에는 國家의 施策으로 길가에 있는 牆屋을 覆瓦하도록 하기도 하였다³⁹⁾」.

우리나라의 宮闕이나 家屋에 草花紋 등으로 裝飾한 담이 있는데 그 起原이 高麗時代로 보인다. 즉 忠烈王時의 中國人 張舜龍이 歸化하여「집을 華麗하게 짓고 기와와 자갈로 外部의 담을 쌓아 여기에 花草모양을 장식하여 사람들이 張家의 담이라 하였다⁴⁰⁾」하는바 當時 담에 裝飾한 것이 高麗人들에게 매우 特異하여 「張家의 담」이란 명칭이 붙었으며 이후 그 技法이 傳承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中國의 家屋에는 대문을 들어서면 마주치는 곳에 設置된 裝飾담이 있어 照壁(他壁에 依存하지 않고 독립된 것은 影壁牆이라고 함)이라고 부르는데⁴¹⁾ 張舜龍은 이 照壁의 樣式을 그의 집 담장에 施工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 裝飾담은 唐代의 畫家人 楊惠之가 塑(塑)만드는 공부로 轉向하여 山水壁에 一家를 이루었고 後에 宋의 郭熙가 楊惠之의 山水壁 裝飾技法에 新法을 더한 것으로 郭熙는 用具를 使用하지 않고 손으로서 진흙을 材料로 하여 凹凸형으로 형태를 만들어 진흙이 마르면 分明하지 않은 곳을 먹으로써 愛戀하게 그리어 山巒 林壑 樓閣 人物 등을 나타내었다⁴²⁾. 이 照壁은 中國의 傳統 家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3 住宅內部

室內風景에 대해서는 高麗圖經에 자세히 記錄되어져 있다.

주 高麗圖經 臥榻條를 보면

「臥榻앞에 다시 倭榻을 놓는다. 침대 三면에 난간을 만들고 자기 비단이 부자리를 깔고 그 위에 다시 큰 왕골자리와 대자리(大席莞蓆)를 깔다. 자리가 편안하여 異國의 낮은 기분이 안난다. 이것은 國主나 貴臣들의 예이고 겸하여 中國使臣을 접대할 때 쓴다. 백성들은 흠자리를 만들고 땅을 파서 불을 때고 그 위에 놓는다. 그 나라의 겨울은 몹시 춥고 솜이 적기 때문에 불을 많이 댈다」라고 記錄되어 當時 상류층에서는 온돌이 없이 中國(宋)과 다름없는 榻(침상)에서起居했으며 庶民들은 온돌生活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온돌의 형태가 中國 北方系 온돌 형태인 Kang(炕)인지 요즈음의 온돌과 같은 형태인지는 文獻만으로 明確하게 알 수 없다.

온돌에 대한 記錄은 上記 외에도 高麗史에 「일찌기 한 州에 投宿하였는데 밤중에 불이 나서 골뚝 틈으로 寢席을 태우니……云云」라는 것으로 온돌의 存在를 엿볼 수 있으며 또 補閑集에 「華嚴月首座의 남은 이야기 중……道士가 찬 온돌방에 앉았는데 조금도 추워하는 빛이 없었다. 그때 매우 추워 道士가 얼어 죽을까 보아 하인을 보내 장작을 때 온돌을 따뜻하게 해 주고 갔다. 行者가 와 보니 기쁜 빛이 없고 친척히 밖으로 나와 자갈을 온돌 구멍에 넣고 진흙을 틈에 발랐다」는 것으로 온돌이普及된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

朝鮮後期の 著書인 林園十六志나 星湖僊說에 當時를 起點으로 「百年前 또는 數百年前 以前の 큰 家屋에 온돌이 一、二間에 불과해 老病者만이 온돌에起居했고 青年들은 마루에起居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高麗時代는 온돌이 庶民層에서 富裕層으로 傳播되는 過度期로 온돌은 매우 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當時의 上流住宅들은 온돌 대신 火爐로서 煖房을 하였다. 高麗圖經에

「溫爐」라는 器名이 있어 겨울철에 사용했다」고 했으며 補閑集에 獸尾달린 火爐자리가 따뜻하여 옮겨 앉기가 싫다」하였고 同 補閑集에 柳公器의 아들 源이 五歲에 지었다는 詩에 「火爐에 鳳炭이 가득 쌓였으니 候의 집이 따뜻하더라」는 文句가 있어 火爐가 富裕層의 煖房法으로 重要な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火爐는 煉炭이 널리 普及되기以前인 一九五〇年代 까지도 우리들 家庭의 온돌방에 補助煖房 子실을 하였다.

高麗圖經의 館廳條를 보면 窓戶를 設置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것은 特殊한 예이고 이 時代의 寺刹建物인 鳳停寺 極樂殿이나 浮石寺 祖寺堂 등의 窓門은 불박이 삼창이고 출입문은 板門이나 分間門으로 되어 있는바 一般住宅들도 이들의 樣式과 큰 差는 없었으리라 본다. 伽倻時代의 家形土器에서도 불박이 창문과 板門의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창문이나 出入門의 樣式은 冬節의 外風을 막기 힘들어 일찍부터(三國時代) 屏風과 房帳을 사용하게 되었다.

高麗圖經에 나오는 「門帷는 푸른 명주 三폭으로 만들어 위는 들 수 있도록 되어 나무로 꿰어 걸게된 것으로 술집의 깃발 같이 생겼다. 이는 宮室의 부인들이 창을 가리는데 쓰는 기구이다」라고 되어 요즈음의 커튼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門帷는 일부 귀족층에서도 使用했으리라 생각된다.

벽은 흔히 書畫로 장식하여 귀한 珍物로 쓰기도 했다. 壁에는 죽자를 걸거나 그림 가리개도 裝飾하였다.

當時는 종이 가 몹시 귀해 宮室이나 勢力있는 貴族집의 壁은 비단도베를 했고 一部 富裕層은 회벽마감을 한 것으로 보이며 庶民들은 흙벽이 노출된 상태로 살았다.

방바닥은 博을 깔거나 흙바닥 또는 마루로 되어 그 위에 거친 자리를 깔았는데 자리는 흑백의 두가지 色으로 文樣을 넣어 짚으며 周緣을靑 또는 紫色으로 하였다. 또 곱게 짠 자리는 윗위에 깔았다」

이러한 生活는 一部 貴族이나 富裕層에 限한 것이며 庶民層은 흠자리를

위에 벗겨지거나 갈자리 또는 거친 대자리를 갈았다.

五、結 論

三國時代 建築物이 어떠한 것인지 正確히는 몰라도 文獻이나 古墳壁 畫 建物遺蹟 石造建物 家形土器 등으로 이루어 훌륭한 瓦屋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當時 建物의 細部는 알 수 없으나 맛배 우진각 팔각 八角의 지붕형식이 存在했던 것을 確認할 수 있다. 三國中 特히 百濟는 주택뿐 아니라 造景 수준도 상당하였던 것 같으며 이러한 영향은 統一 新羅를 거쳐 高麗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高麗 初期는 統一新羅 建築의 延長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中國으로부터 發達된 文化를 흡수하여 왔으며 建築도 예외는 아니었으나 高麗의 太祖는 中國의 建物같은 層樓나 高樓의 建築을 禁하였다. 이것은 太祖가 風水說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施策은 高麗王朝를 통해 建築活動을 規制하여 오늘날과 같은 韓屋이 形成되는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高麗 中期는 宋의 영향을 받아 柱心包樣式이 도입되었다. 當時의 王宮 官衙寺院 貴臣의 家 富家は 瓦屋이었고 이들은 宋나라 사람들과 다를없는 生活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庶民들은 茅草로 이은 낮은집에서 온돌 生活을 하였다.

高麗末期는 中國大陸을 支配하던 元和 駙馬관계를 맺어 元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이 時期에 元에서 유행하던 多包樣式이 도입되었으며 住宅담장을 裝飾하는 技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반면 오랜 戰亂으로 庶民들은 집이 없는 者가 많았으며 草家三、四間에 居住하는 실정이었다.

대체로 우리나라 住宅은 中國의 영향을 받아 部分的인 변화를 보이나 그 基本形은 三國時代에 이루어 졌고 高麗時代는 土着化되는 過程이었다고 보여진다.

① 三國志 魏書東夷傳(韓傳韓國文化人類學會、韓國上古史資料、서울、一九六九) p. 三八

② 三國志 魏書東夷傳 挹婁傳(一九六九) p. 三四

③ 晉書 四夷傳 東夷肅慎(一九六九) p. 五三

④ 通典 邊防門 東夷勿吉(一九六九) p. 二三八

⑤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傳(一九六九) p. 四〇

⑥ 周書 異域傳 高麗(一九六九) p. 七九

⑦ 三國志 魏書 東夷傳 高句麗(一九六九) p. 二九

梁書 諸夷傳 東夷高句麗(一九六九) p. 六一

南史 東夷傳 東夷高句麗(一九六九) p. 一〇〇

⑧ 李丙燾譯註 三國遺事(서울 廣惠出版社、一九六九) p. 二七〇

⑨ 金正基 建築(同和出版社 韓國美術全集 一九七五) pp. 六〇七

⑩ 三國史記 卷第二十三 百濟本記第一(始祖溫祚王)十五年正月條

⑪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記第三 辰斯王七年正月條

⑫ 三國史記 卷第二十六 百濟本記第四 東城王二十二年 春

⑬ 三國史記 卷第二十七 百濟本記第五 武王三十五年三月條

三十七年三月條

⑭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屋舍條

⑮ 三國史記 卷第三十三 雜志 第二器用條

⑯ 諸橋徹次 大韓和辭典 卷六、毛部 참조

⑰ 唐書 東夷傳 新羅(一九六九) p. 一八九

⑱ 三國遺事 卷五 感通第七 金現感虎 참조

⑲ 三國遺事 卷一 紀異第一 又四節遊宅

⑳ 高麗史 卷九十三 列傳 卷第六 崔承老 참조 禮云、天子堂九尺、諸侯堂七尺

㉑ 高麗史 卷二十八 忠烈王三年七月 丙申條

註二〇 崔承老 참조

註二一 崔承老 참조

㉒ 徐兢 高麗圖經 第三卷 城邑 民居 참조

㉓ 高麗史 卷八十一 志卷 第二十五 兵 一辛禍 元年八月條 참조

㉔ 高麗史 卷十八 世家 卷第十八 毅宗二十八年秋七月 壬辰條

㉕ 高麗史 卷一百二十一 列傳 卷第三十五 鄭誠 참조

㉖ 高麗史 卷一百二十九 列傳 卷第四十二 崔忠獻 참조

㉗ 高麗史 卷一百二十三 列傳 卷第三十六 張舜龍 참조

- 30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二、三年七月甲午條
 31 高麗史 卷三十三 世家 卷第三十三 忠宣王一、一年八月辛亥條
 32 高麗史 卷八十五 志、卷第三十九 刑法二、恭讓王 四年三月
 33 高麗史 卷十八 世家 卷第十八 毅宗二、十年夏四月丙申條
 34 崔淳雨 高麗青磁瓦(美術資料第十三號) pp. 1~11
 35 註 33 社五
 36 高麗史 卷三十五 世家 卷第三十五 忠肅王二、十六年春正月
 37 高麗史 卷二十八 世家 卷第二十八 忠烈王一、三年五月壬辰條
 38 高麗史 卷二十九 世家 卷第二十九 忠烈王二、六年六月辛巳條
 39 高麗史 卷一百五 列傳 卷第十八 鄭可臣(忠烈王二十二年)
 40 註 29 社五
 41 內田道夫 北京風俗圖譜 居處 第三(日本平凡社) p. 11-13
 42 徐有架、林園十六志 贍用志 卷一 營造之 制坊 塿影壁
 43 徐統 高麗圖經 第二十八卷 供張一 臥榻
 44 高麗史 卷二百六 列傳 卷第十九 朱悅 參 五
 45 補閑集 卷下(아세아문화사 一九七二) pp. 154-155
 46 星湖僊說 天地門 寢於板廳(경인문화사) p. 55-57
 47 徐統 高麗圖經 第三十一卷 器皿二 溫爐
 48 補閑集 下(一九七二) p. 134
 49 補閑集 卷下(一九七二) p. 161
 50 徐統 高麗圖經 第二十七卷 館廳
 51 徐統 高麗圖經 第二十八卷 供張一 門帷
 52 徐統 高麗圖經 第二十八卷 供張一 文席

參考文獻

- 三國遺事
 三國史記
 譯註高麗史 東亞大學校 出版社
 高麗圖經 梨花史學研究所 一九七〇
 補閑集 아세아문화사 一九七二
 林園十六志 서울대학교 고전총서 제五집
 星湖僊說 경인문화사 一九七〇
 北京風俗圖譜 內田道夫解說 東洋文庫二三(日本平凡社)

중국문헌에 나타난 韓國上古史資料 韓國文化人類學會 一九六九
 韓國文化史大系(上)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一九七一
 韓國美術全集 四권 壁畫 同和出版社 一九七四
 韓國美術全集 十四권 建築 同和出版社 一九七四
 韓國建築史 尹張燮 文運堂
 美術資料 十三號 國立中央博物館 一九六九
 大漢和辭典

(民俗博物館 學藝研究士)